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9월 13일 연중 제24 주일						
하늘을 쳐다보시는가? 9월의 하늘은 마치 누군가 파란 물감을 쏟아 부은 듯 청량하고 맑다. 보고만 있어도 하늘의 이야기가 쏟아 내릴 것 같다. 그런데 하늘은 늘 있는 곳에 있으니 우리의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고, 머릿속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상 문제와 스트레스로 복잡하다. "통장 잔고는 왜 이렇게 바닥을 갈까?" 혹은 "아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이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귀로 들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절대 안 되는 안타까움이 마음에 넘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스스로 감정의 문을 닫아 버린다. 미움과 증오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억울해한다.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저 상처받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내 팔자야" 하고 자포자기하 듯 살아간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비유 하나를 들려준다.						
복음에 나오는 종의 빛은 자그마치 '만 달라이트'였다.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 아니 개인이 평생 동안 아니 수 없이 다시 태어나도 못 갚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종이 앞드려 시간을 좀 주시면 다 갚겠다고 빌자, 원금 분할 상환 기한 연장이나 담보 설정 같은 조건도 없이, 주인은 탕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베푼다. 이유는 단 하나, "가없는 마음"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초대형 적자 경영 마인드다. 하느님의 자비는 이렇게 파격적이고 헤프다 싶을 정도의 상상초월의 사랑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수조 원의 빛을 단번에 탕감 받고 나온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빛진 동료를 만난다. 그리고는 먹살을 부여잡고 당장 돈 갚으라며 감옥에 가둬버린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처사인가?						
그런데 정작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생명, 구원, 조건 없는 자비'라는 엄청난 것들을 은총(공짜)으로 받아 산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면 먹살부터 잡으려 든다. 하느님께 받은 거대한 용서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타인의 조그만 허물에는 눈을 번뜩이며 법적 감정적 응징을 가하려 한다.						
오늘 1독서 집회서 저자는 우리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진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집회서 28,3)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칼같이 잣대를 들이 대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주님, 제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염치 없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와 진노 혐오스러운 적개심을 쥐고 있으면 하느님의 평화는 먼 곳에 있을 뿐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내 안에 쌓아두는 ‘저장 용’이 아니라, 나를 거쳐 타인에게 흘러가는 ‘통로용’이어야 한다. 하느님의 자비가 나를 지나 내게 상처 준 이들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화해와 자유'라는 용서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진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하느님의 탕감 은혜를 아직 가슴 깊이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 가치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인간관계의 온갖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할 열쇠를 우리에게 건넨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 14,8)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재산… 이 모든 것에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으니 조그만 손해나 상처에도 넘어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명예도, 내 억울함도, 심지어 내 존재 자체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왜 내 자존심 때문에 영혼을 상하게 하면서 분노할까?"하며 한 걸음 물러 나 의연해질 수 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분노, 억울함, 적개심은 우리 삶 안에 찾아올 수 있다.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불청객에게 상을 차려주고 안방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시선을 잠시 땅에서 하늘로 돌려보자. 그리고 나를 살려낸 자비와 은혜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마음을 정화하고, 그 독한 감정들을 보내 버리자. 여전히 이를 갈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문밖에서 안절부절하시며 이제 그만 그 고통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용서의 영적인 공식은 아주 단순하다. "주님의 것인 '나'가, 주님의 것인 '너'를 용서한다." 또 "주님의 것인 '너'가, 주님의 것인 '나'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잃은 것도, 당한 것도, 빼앗긴 것도 '주님의 것'으로 보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맘껏 받아들여, 나를 묶고 있던 미움의 줄을 끊어 내는 우리였으면 한다.						
	시간	해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9/13	9 시	김종휘(루카)	김희경(안젤라))	정한나		박춘자(아가다)
	11 시	김경숙(클로틸다)	서원복(로사리아)	임기홍(스테파노)		이 영(레오) 이관숙(마리아)
26 년 9/20	10시	본당의 날				

공 동 체 소 식

A heartfelt thank-you to one and all for the wonderful celebration of my 80th birthday! Your greetings, cards, gifts, and especially your presence and good wishes meant so much to me. You made my 80th birthday very memorable! Fr. Don

◎**본당의 날 미사안내**
9월 20일(일)(한국순교자 대축일)은 본당의 날입니다. **미사는 오전 10시에 이중언어로 한 대만 봉헌됩니다.** 미사 후 식사와 행사에 많은 협조와 참석을 바랍니다.

◎**레지오 교육**
레지오 행동단원과 협조단원, 관심있으신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개인 텀블러 지참바랍니다)
▶일시: 2026년 9월 13일(일) 12:30 PM
▶장소: 성 정하상 성당 ▶강사: 김경희(루시아)수녀.

◎**봉성체 안내**
9 월 18 일(금), 환자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혹은 수녀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반모임 안내**
▶4구역 1반: 9월 19일(토) 오후6시 김주영(이냐시오)덱
▶4구역 5반: 9월 19일(토) 오후 2시 정행자(세실리아)덱
▶8구역 1반: 9월 19일(토) 오후6시 허은(안드레아)덱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일시: 9 월 25 일(금) 오후 7 시 30 분
미사신청 하실 분들은 9 월 20 일까지 접수하십시오. 사진을 제출하실 분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환영 올드레아**
▶일시:9 월 27 일(일)오전 10 시 30 분, 신관 1 호실
중북부 시카고 여성 18 차 꾸르실료가 교우분들의 기도 속에서 잘 끝마쳤습니다. 수료하신 이향례(자넷), 임장미(모니카), 표혜진(레지나)자매님들을 축하합니다! 모두 오셔서 교육을 마친 세 분을 환영해 주십시오!

▶◎**성경공부. 성경통독 안내**
▶성경공부: 매주(수) 오후 2시 최에스텔 수녀
▶성경통독: 매주(목) 오후 6시 이마틸다 수녀

◎**2027 년 부활세레반 예비자 모집 안내 - 10 월까지**
▶성인교리시간: 주일 오전 9 시 30 분
▶청년교리시간: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Generation to Generation 기금모금**
시카고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세대에서 세대로’의 기금모금에 교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수표를 쓸 때 수취인을 **G2G** 혹은 **G to G** 로 쓰십시오. ▶본당 목표: \$440,000.00 (기간:5 년)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박순연(마리아), 정찬일(안토니오), 주영재(요한), 박경철(레오), 김용섭(바오로), 광론님(마리안나), 정행자(세실리아), 김정옥(에스터), 신난숙(젼마), 장미자(안젤라), 정인선(요한), 배형자(헬레나), 배석기(노엘), 김정우(바오로), 이태식(요한), 이동자(로렌시아), 이문규(라파엘), 이춘재(엘리사벳), 강젼마, 전진숙(아네스), 조갑목(스테파노), 이대수(안토니오), 김클로틸다, 정성수(유스티노), 정유하(시메온), 박마리아, 김영일(미카엘), 고연(요한), 박종현(야고보), 이영수(안드레아), 강정자(수산나), 윌리엄버지스, 김동진(가롤로), 김앤디(안드레아), 김영훈(미카엘), 지영킴(헬레나)

■**감사헌금:** 박순연(마리아), 이동준(베드로), 정찬일(안토니오), 탐 박(토마스), 김영일(미카엘)

■**카톨릭성상건립후원:** 한호자(모니카)

○교무금 \$ 5,640.00 ○주일헌금 \$ 2,098.00
○토요헌금 \$ 11.00 ○성물방입금 \$ 24.00
○감사헌금 \$1,000.00 ○카톨릭성상후원 \$ 500.00

『 2026년 9월 13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주가나(안나), 유명주(마가렛), 송영현, 앤디킴(안드레아), 김정옥(에스터), 폴리(Paul Lee), 이세경(이사벨라), 민충식, 권소현(올리비아), 엄광식(토마스),

■ **연미사**
이궁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꼴라따), 이선애(마틸다),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김성애(마리안나), 김진봉(베드로), 허준(요셉), 허순덕(마리아), 허순이(마멜다), 조문기(샤스땅야고보), 주영선(소피아), 임영일(바오로), 김창순(파스칼), 김예순(안나), 김종수, 이동준(베드로)

9월 15일(화)
최경애(테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꼴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연미사)

9월16일(수) ~ 9월19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연미사)
9월 16일(수) Fr. Don (생미사)
9월 17일(목) 주영민(아오스딩) (연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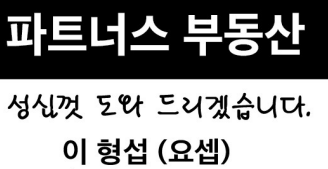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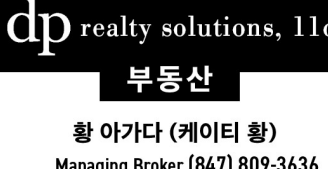
파트너스 부동산
성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배 페인팅
배 홍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Michael Zyung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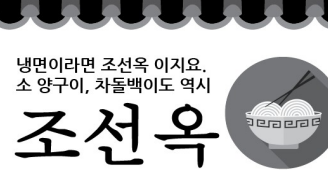
반포정
전공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atom美
최 켜마
(847) 414-0863



B&W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조선옥
냉면이라면 조선옥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박이도 역시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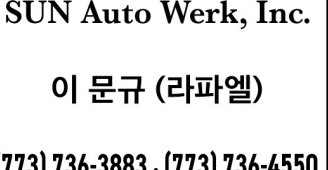
TAXI & AUTO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ago, IL 60614
312.929.9069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젼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i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한국장 의사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www.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Sr. 이 정희(마틸다) C (773) 941-2648

2026 년 9 월 13 일 연중 제 24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집회서 27,30—28,7
● 화답송



주 님 은 자 비 록 고 너 그 러 우 시 며 -
분 노 에 는 더 디 시 나 자 애 는 넘 치 시 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4,7-9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복음 마태오.18,21-35
●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286 봉헌성가 221
성체성가 166 파견성가 47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